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문화기획을 공부하다

대구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외 7곳

이렇게 '스스로'를 시작했어요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대구지부에는 그나라 어린이도서관, 꿈꾸는 마을도서관 도토리,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반야월행복한어린이도서관 아띠,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더불어숲, 책마실도서관, 해봄도서관이 함께하고 있다.

대구지부는 격월 회의를 통해 도서관 활동 공유, 방학 때 각 도서관 자원활동가의 강사 교차 파견, 지자체 도서관정책 공유 및 토론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시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대구시 독서의 숲을 제대로 만들자'는 내용으로 대구시 독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후보자에게 정책실현 의지를 확인하는 답변서를 요구하는등 독서공동체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올해 초 대구지부 사업을 논의하면서 책이 중심이 되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활동가 역량강화, 앞으로 작은도서관 철학이 담긴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공부를 이어가고 논의했다.

기획배경

대구지부 소속 도서관 활동가들이 강좌를 개최하고 싶었던 이유와 필요성은 지금 작은도서관 양적 증가만큼 질적인 성장은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자 도서관 운영에 급급해서 차분히 교육역량을 축적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과 대구작은도서관 네트워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대구지부, 마을도서관네트워크, 대구작은도서관협회) 여럿 구성되어 있으나 꾸준하고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지자체, 대표도서관이 주최하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원활동가 교육은 현장의 목소리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교육성과가 축적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스스로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서 개별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뛰어 넘어 넓은 시선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원활동가 성장에 집중하고, 아카데미 이후에도 연구와 토론으로 배움을 이어나가며 작은도서관 철학이 담긴 책문화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과 깊이 만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장소: 대구여성회 3층 교육실(시정 옆)
문의: 010-9299-3033

9/19 목요일 14:00	문화 다양성과 작은도서관 강사: 박미숙 해과 도서관 대표	9/26 목요일 14:00	독서문화 기획과 실제 1 강사: 박형섭 독서문화 기획자
10/10 목요일 14:00	독서문화 기획과 실제 2 강사: 박형섭 독서문화 기획자	10/17 목요일 14:00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도출 강사: 지명희 대구여성광장 대표, 퍼실리테이터

주최: I세대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대구지부

아카데미는 작은도서관 탐방, 강연, 워크숍, 평가 등의 내용으로 총 6회 진행되었다.

강좌를 열기 전 첫 행사로 대한민국 독서대전, 초롱이네도서관을 탐방하였다. 올해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지역의 여럿 도서관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해 독서문화, 독서동아리 운영, 도서관 독서문화기획 사례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 초롱이네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아늑한 분위기에 매료되고, 북스테이, 도서관 굿즈 제작판매 등 다양한 활동을 접할 수 있었다.

이어진 강좌는 문화다양성과 작은도서관, 독서문화기획과 실제에 대한 내용이었다.

박미숙 선생님의 '문화다양성과 작은도서관' 강의를 통해서 작은도서관이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인가,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



작은도서관이 커뮤니티, 공동체, 독서문화, 평생교육, 평등한 공간으로서 문화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서, 언어, 활동, 관계 등 생각할 거리와 과제를 얻은 강의였다.

박형섭 선생님의 '독서문화기획의 실제'는 독서문화기획, 책축제 내용으로 두 번에 걸쳐 강의했다. 독서문화기획을 위해서는 먼저 마을의 특징 찾기, 도서관이 실험교육의 장소, 평생교육의 장소로 추억을 남기는 기획을 권해주셨다. 프로그램은 재미있게, 내가 주인공이 되도록, 연속성을 가진 기획을 강조하며 여러 사례를 들려줬다.

마지막 강좌는 워크숍으로 진행했다. 지명희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으로 작은도서관 활동을 되돌아보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워크숍이었다.

먼저 '요즘 나는?' 이라는 내용으로 도서관 활동의 만족도, 내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공간온도계를 체크해보고, 우리가 꿈꾸는 도서관의 모습, 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창조하고, 어떤 활동을 증가하고 감소, 제거할지를 토론해보는 시간이었다. 워크숍에서 활동가의 고민과 마음을 나누고, 도서관 활동에서 덜 지치고 재미있게 활동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깊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앞으로는 우리의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워크숍을 길게 해보자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 우리는

스스로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지역의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이 매주 얼굴을 맞대며 고민과 배움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다. 일상에서는 각자 도서관 운영에 허덕이다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조금이나마 숨고르기를 할 수 있었다.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대구지부가 있기에 작은도서관 운동을 이어가고 어려움을 나누며 든든한 울타리임을 새삼 확인하는 자리였다. 앞으로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이 문화다양성을 구현하고 독서문화기획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후속모임을 하기로 했다. 매월 문화다양성, 독서문화기획 관련 책을 읽고 연구와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와 함께한 소감

스스로 아카데미를 해보니, 기획과정이 조금 더 면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은 역시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된다는 것. 아띠 관장님이 언젠가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나서는 나누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막연함을 구체화 시켜주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함이 생겼고 더 많이 알고 싶은 것을 찾았다는 게 저에게는 큰 성과입니다. 같이 모여서 책도 읽고 찾아보면서 치열하게 공부해 봅시다요!! - 김경희

작은도서관 문화에 대한 흐름이나 과정, 내용들을 구체화할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카데미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공통의 과제로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공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끝이 아니길.ㅋ - 김수민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졌지만 같은 수단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같은 고민도 있고 다른 고민도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의 좋은 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마련의 장이었던 거 같아요. 이번 아카데미가 초석이 되어 서로 응집하여 협력되어졌으면 합니다. - 손수정

독서문화프로그램의 기획, 실행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최경임